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3.5.30

1 주가 현황

	수익률(%)				PER(x)		PBR(x)		배당수익률(%)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1W	1M	3M	6M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KOSPI	0.8	2.3	6.0	5.2	15.1	10.1	1.0	0.9	2.2	2.4	<p>SKT 44.3% (+0.0%p WoW, +0.1%p MoM) KT 40.3% (-0.1%p WoW, -0.1%p MoM) LGU+ 39.2% (+0.1%p WoW, +0.3%p MoM) SKT, LGU+ 외국인 순매수 기록</p>
통신업종	-0.5	3.4	5.4	-7.2	7.9	7.3	0.6	0.6	6.5	7.0	
SK텔레콤	-0.6	4.0	9.9	-0.4	10.2	9.3	0.9	0.9	6.8	7.1	
KT	-0.2	4.3	2.8	-15.7	6.3	5.8	0.5	0.4	6.4	7.1	
LG유플러스	-1.1	1.1	0.6	-6.8	6.9	6.5	0.6	0.5	6.2	6.6	
AT&T	-5.0	-12.3	-18.0	-18.5	6.4	6.2	1.0	0.9	7.2	7.3	
Verizon	-2.9	-9.9	-9.8	-8.7	7.5	7.5	1.5	1.3	7.5	7.7	
T-Mobile	-2.8	-6.1	-4.9	-9.1	18.9	14.1	2.5	2.5	0.0	0.0	
NTT	-3.2	-1.9	3.1	6.0	10.9	10.3	1.5	1.4	3.2	3.4	
KDDI	-2.9	2.6	9.3	6.7	13.2	12.4	1.7	1.6	3.3	3.5	
Softbank	6.2	8.8	0.5	-7.0	24.7	27.4	0.8	0.8	0.9	0.9	
China Mobile	-4.0	-5.8	8.4	23.8	9.1	8.4	0.9	0.9	7.9	8.7	
China Unicom	-5.8	-2.8	1.9	40.1	9.6	8.4	0.5	0.4	6.2	7.6	
China Telecom	-5.3	-9.7	0.5	27.6	10.5	9.4	0.7	0.7	6.6	7.5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5월 넷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1.3%p 수익률 기록하며 Underperform
삼성전자-보다폰, 도심 지역에서 오픈랜 방식 5G 네트워크 송출에 성공. 삼성전자가 공급한 5G 장치 활용
KT-에릭슨, 5G와 롱텀에볼루션(LTE·4G) 안테나가 결합된 신규 무선장치(RU) 상용화 기술검증 성공
국내 기관은 KT 순매수, SKT, LGU+ 순매도. 외국인인은 SKT, LGU+ 순매수,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금주 내 SKT 5G 28㎒ 주파수 최초 처분 확정될 전망. 정부는 6월 중 신규 사업자 지원책 마련, 주파수 할당 방안 공고
과기정통부, 6월 '오픈랜(OpenRAN·개방형 무선접속망) 얼라이언스 출범. 관련 기술 개발 지원 예정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 서비스 '스타링크', 10월 국내 서비스 개시 목표. 진출 시기를 2분기에서 4분기로 연기

★ 통신업종 캘린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3 주간 뉴스

▶ 과기정통부, 내달 8일 '오픈랜 얼라이언스' 출범... 6G 패권 경쟁 빨라진다 (조선비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6/8일 '오픈랜(OpenRAN·개방형 무선접속망) 얼라이언스(협의체)'를 출범
- 오픈랜 얼라이언스는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 기능·성능 시험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역할
- 오픈랜, 각기 다른 제조사가 만든 통신장비를 연동해 쓸 수 있도록 하여 6G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기술
- ⇒ 오픈랜 얼라이언스에는 통신 3사, 국내외 장비 제조사,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및 협회 참여
- ⇒ 오픈랜 도입 시 통신사는 장비 선택지를 넓히면서 인프라 구축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

▶ 수술투입된 단통법... 단말기 구매·통신 가입 분리될까 (아이뉴스24)

- 정부,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통법 검토 계획
-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단말기 구매와 이동사 가입 분리 여부도 쟁점
- 통신시장경쟁촉진방안 태스크포스(TF)에서는 단통법 검토 필요성이 있다는 제안에 따라 검토 중
- ⇒ 현재로서는 단통법 개정이나 폐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는 상황
- ⇒ 정부는 단말과 요금을 완전 분리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

▶ 5G 속도 과대 광고로 '336억 과징금'...통신3사 '대응 검토' (데일리안)

- 공정거래위원회, 24일 통신 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 과장한 광고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 SK텔레콤은 168억 2,900만원, KT는 139억 3,100만원, LG유플러스는 28억 5,000만원
- 공정위 측은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전해
- ⇒ 공정위 측은 소비자의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 이 사건 광고가 위법하다고 결정
- ⇒ 통신3사는 이번 제재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 공정위의 결정을 받고 대응 여부를 검토할 예정

▶ SKT 28㎒ 주파수 취소 처분 임박...내달부터 신규 사업자 본격 물색 (뉴스1)

- 12일 사전 통시했던 SKT 5G 28㎒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이 금주 중 확정될 전망
- 23일에는 사전 처분에 대해 SK텔레콤의 의견을 듣는 비공개 청문 절차를 진행
- 정부는 6월 중 신규 사업자 지원책을 마련하고 주파수 할당 방안을 공고할 예정
- ⇒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 방안 등을 담은 통신 시장 경쟁 촉진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
- ⇒ 주파수의 새로운 사업자 물색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은 없는 상황. 올해 4분기 중 선정

▶ LGU+ 100㎒폭 활용 초읽기... 5G 품질평가 순위 바뀔까 (파이낸셜뉴스)

- LGU+ 22년 정부로부터 추가 할당받은 5G 20㎒(3.40~3.42㎒) 주파수 폭 활용이 임박
- 추가 주파수 폭을 활용하기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 구축을 모두 마친 상황
- 올해 1·4분기 설비투자액(CAPEX)도 경쟁사 대비 최대 3,800억원 이상 많은 5,192억원
- ⇒ 활용 주파수 폭이 20㎒만큼 늘어나는 만큼 5G 품질 향상도 기대
- ⇒ 이에 따라 이동사들은 하반기 정부가 발표할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주목하고 있어

▶ 삼성, 유럽 도심에 첫 5G 오픈랜 상용화 (전자신문)

- 삼성전자와 영국 이동통신사 보다폰이 유럽 최초로 도심 지역에서 5G 오픈랜 상용화에 성공
- 교외지역이 아닌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에서 상용 신호 송출을 이뤄낸 첫 사례
- 삼성전자가 공급한 5G 가상화 기지국(vRAN) 솔루션과 다중입출력장치(MIMO)를 활용
- ⇒ 이번 보다폰 도심 지역 5G 오픈랜 프로젝트에는 삼성전자와 캡제미니, 델, 인텔 등이 참여
- ⇒ 삼성전자는 이번 실증 결과로 유럽 전역에 통신장비 판로 확장 기반을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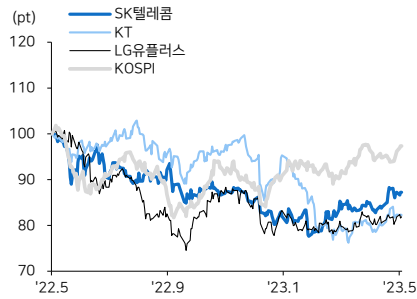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십억달러)	종가 (통화)	시가 총액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EBITDA		EV/EBITDA (배)		ROE (%)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2023E	2024E	
한국	SK텔레콤	49,600	8.2	13.3	13.7	1.3	1.4	0.8	0.9	4.2	4.2	3.8	3.8	9.1	9.5
	KT	31,300	6.2	20.0	20.5	1.3	1.4	0.9	1.0	4.3	4.4	3.2	3.2	7.0	7.3
	LG유플러스	11,140	3.7	10.8	11.1	0.8	0.9	0.5	0.6	2.8	2.8	3.2	3.1	8.3	8.4
미국	AT&T	15.5	110.8	122.1	123.6	24.2	25.1	17.5	17.9	42.9	43.8	5.9	5.8	16.5	15.2
	Verizon	35.0	147.1	135.5	137.1	30.2	30.7	19.6	19.5	47.5	48.1	6.3	6.2	20.6	18.8
	T-Mobile	135.2	162.2	79.5	82.2	15.1	18.2	8.7	10.6	29.2	31.7	8.2	7.5	13.3	18.8
일본	NTT	4,069	105.0	95.6	93.5	13.6	13.7	9.0	9.0	25.3	24.9	7.0	6.8	14.3	14.4
	KDDI	4,357	71.5	41.6	41.5	8.0	8.0	5.0	5.0	13.2	13.1	6.4	6.2	13.4	13.3
	Softbank	5,542	58.0	48.3	48.8	-0.1	8.6	-1.8	3.5	13.7	14.0	12.8	12.1	-2.4	4.6
중국	China Mobile	64.4	178.8	145.4	156.3	21.0	23.2	19.2	20.8	49.4	51.8	3.0	2.8	10.3	10.8
	China Unicom	5.8	22.8	53.9	57.2	2.1	2.6	2.7	3.0	14.7	15.4	1.3	1.2	5.4	5.9
	China Telecom	4.0	70.7	74.5	80.4	5.6	6.3	4.4	4.9	19.7	21.0	3.6	3.4	7.0	7.6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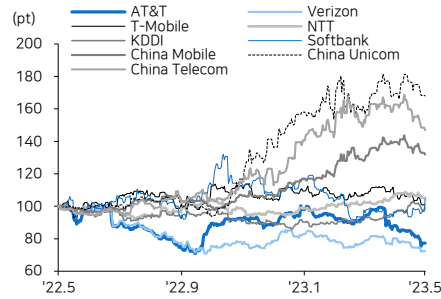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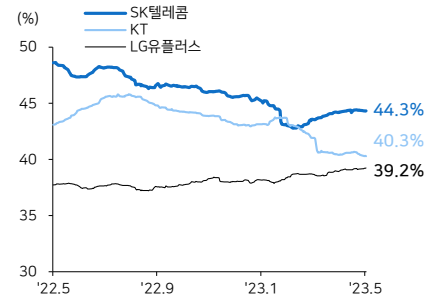
자료: FnGuide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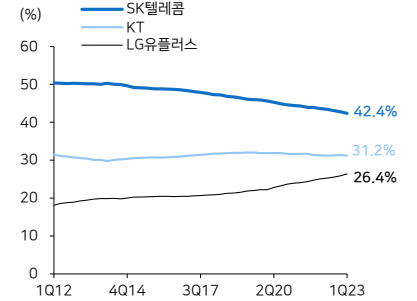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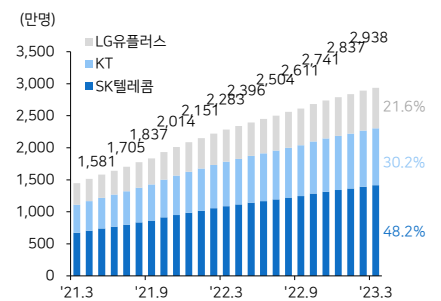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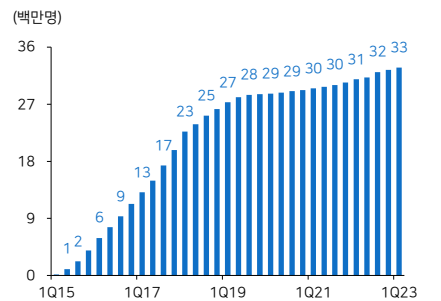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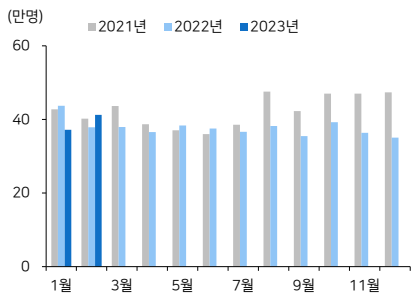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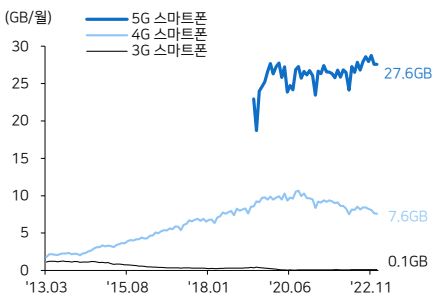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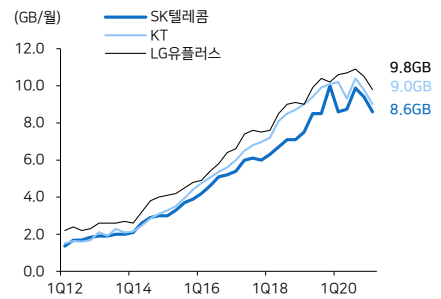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